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교계의 반응과 과제

-커리 교수와의 좌담회를 마치고-



커리 교수는 미국의 교단별로 기독교 신자들의 세계관과 환경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였다.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인간과 자연이 죄 탓에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여 타락하고 고통을 받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러 스도를 통하여 속죄함을 얻고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피조물인 자연을 보는 관점과 환경문제에 대적하는 태도에는 교단별로 혹은 개인별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자연을 인간을 위해 주어진 도구로 보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인간을 자연에 대한 청지기로서 보거나 자연과 인간을 동등한 위치에 두는 신자들도 있었다. 21세기에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교회도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함께 하는 힘을 모을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였다.



커리 교수는 한국 교회의 환경관에 대하여 공감해왔었는데, 특히 4대강사업에 대하여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물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미국은 4대강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는 하천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하여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기술훈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다급한 문제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환경문제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 그나마도 기후변화는 먼 문제이고 당장은 4대강사업과 원자력 발전 문제가 가장 큰 현안 과제이다. 천주교는 주교회의의 결의에 따라 4대강사업과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뜻을 정하였고 불교와 원불교도 이에 대체로 동참하고 있다.



2012년 4월 19일 미국 대사관에서 켈빈 대사의 재닐 커리(Janel Curry) 교수(지리학)와의 좌담회가 기독교세계관학술통역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그 내용은 미국 기독교계의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에 대한 인식과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움직임에 대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앞으로 기독교인 학자들의 역할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우리 측에서 참석한 사람은 경희대의 유정길 교수(생물학), 고려대 정서용 교수(환경법학), 서울대 홍종호 교수(환경경제학), 그리고 서울대 명예교수인 김정옥 교수(환경공학)이었다.



김정옥 (金丁勳)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로드 아일랜드 대학교에서 환경공학으로 석사를, 텍사스 대학교(오스틴)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였다. 1982년부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전임 용역을 지냈고,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재널 커리 (Janel Curry) 박사 소개 1977년 미네소타 벨렐 칼리지 졸업(BA), 1981년 미네소타 대학 지리학 석사, 1985년 미네소타 대학 지리학 박사 학위 취득했다. 1986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수, 현재 정치, 사회 및 경제 사상에 관한 기독교적 관심을 발전시키는 캐리 및 헬메타 바이커 석좌회 (the Cary and Helieta Byker Chair) 교수로서 미국 및 캐나다의 지리학과 문화 지리학 인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독교계는 스펙트럼으로 흩어져 있다. 기본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기총이 4대강사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보수적인 대형교회들은 두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사업들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교회의 양극화가 심화하여 서로의 자리에 서로가 침착하지 않는 형편이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커리 교수가 제안한 대로 그야말로 어떻게 서로의 생각을 들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는가에 있다고 하겠다. 기독교계 개관학술통역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미국의 교계의 도움도 환영하면서, 그래서 한국의 교계가 기후변화와 같은 전 인류적이고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하여 눈을 떠서 땅의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리를 마무리하였다.